

# 수험생 '6회 제한' 지키고 서류 미리 준비

2013 대입수시 원서접수 시작…유의 사항은

## 인터넷 접수 지원자 본인정보로 회원가입을

2013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16일 시작된 가운데 이번 수시에서는 지원 횟수가 6회로 제한돼 6회를 초과한 원서접수는 취소 처리되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

입시 전문가들은 "수험생들은 잘못된 정보나 사소한 실수로 소중한 지원기회를 아깝게 놓치는 일이 없도록 수시지원 관련 정보를 꼼꼼히 정리,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별 수시 접수를 대행하는 전자화

가 정리한 인터넷 원서접수 유의사항을 정리했다.

◇박판 눈치작전 주의=박판까지 눈치작전을 벌이거나 마감시간을 넘길 수도 있다. 특히 마감일에 지원자가 몰려 인터넷 회선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아무리 늦어도 마감 1~2시간 전에는 접수를 완료해야 한다.

수시지원은 대학마다 접수일정이 다르므로 마감시간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전형료를 결제해야만 접수가 완료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결제를 마치고 수험번호까지 확인해야 한다. 필요한 제출서류와 증명사진 파일도 미리 마련해 두는 게 좋다.

◇제출서류 확인=원서접수를 마

친 뒤 지원대학별로 제출서류 목록을 확인해야 한다.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는데 빠뜨리면 지원결격 사유에 해당해 불이익을 받는다. 접수 후 마음이 바뀌거나 경쟁률이 높다고 다른 학과로 접수하려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접수가 완료되면 원서수정은 물론 결제 취소도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접수해야 한다.

◇지원자 본인정보로 회원가입=인터넷 접수를 할 경우 간혹 학부모가 회원가입하고 원서접수를 대신 하는 경우가 있다. 사이트 회원과 원서접수가자 등을 혼동해 두는 경우가 있다. 사이트 회원과 원서접수가자 등을 혼동해 두는 경우가 있다.

/운영기자 penfoot@kwangju.co.kr

## 학교폭력 학생부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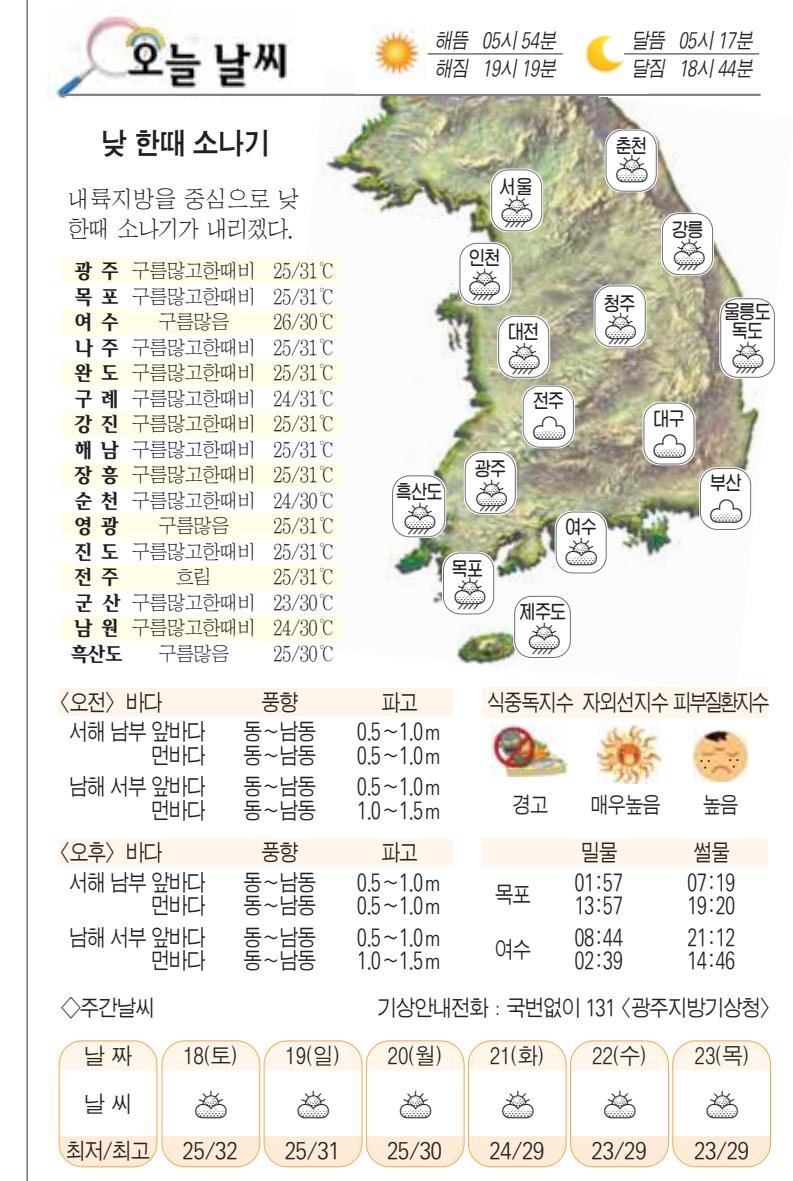
## 교과부, 개선권고 거부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도록 하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은 국가인권위원회에 16일 통보했다.

진보 성향의 강원·전북·경기·광주교육감은 인권위의 권고를 인용해 최근 일선 학교에 학교폭력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을 유보 또는 최소화하라고 지침을 전달한 실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교과부는 "인권침해 요소를 해소했고 대학입시에서 인성요소 평가를 강화한다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발표한 상황에서 일부 시·도만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기재하지 않으면 대입과 학교 현장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운영기자 penfoot@kwangju.co.kr



## 전남대 김윤수 총장 퇴임

### 송경안 교무처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남대학교가 17일부터 송경안 교무처장 직무대행 체제에 들어간다.

송 경무처장은 다음주 중 총장 직선훈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대는 조만간 19대 총장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된 이후 교육과학기술부의 총장 선임에 대한 결과 발표에 따라 후속 절차에 들어간다.

/체험증기자 chae@kwangju.co.kr

## "집회 불법봉쇄 경찰관 상해 책임없다"

### 법원, 윤민호 통합진보 시당위원장 무죄 선고

#### 전주연 의원 벌금 500만원

광주지법 형사 7단독 이단희 판사는 16일 집회 중 충돌 과정에서 경찰관을 치자치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윤민호 통합진보당 광주시당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집회에 참가했다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의회 전주연 의원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위원장의 상해 행위는 경찰관의 위법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일어났지만 전 의원은 정당한 집행을 가로막은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집회 등을 원천 봉쇄할 때는 신체의 위협이나 재산상

중대한 손해가 우려될 때로 제한해야하는데 당시 천막을 펼친 행위는 그 만큼 위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도로점용허가 없이 천막을 펼친 혐행법을 체포하고 천막을 압수하는 것은 적법한 만큼 전 의원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위원장과 전 의원은 지난해 6월 8일 오후 광주 남구 서동 광주경영자총협회 사무실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벌이려다가 이를 막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8월과 6월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비엔날레 작품 첫 공개

제 9회 광주비엔날레(9월 7일~11월 11일)를 20여 일 앞둔 16일, 참여작가인 마이클 주의 작품 '분할불가'(Indivisible)가 언론에 최초 공개됐다. 이 작품은 108개의 방패를 공중에 매달아 서로 연결해 만들어지며, 광주의 5·18민주화운동과 세계의 시민운동을 표현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한화 김승연 회장 징역 4년 선고

### 벌금 51억…법정구속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서경환 부장판사)는 16일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 종처벌법상 횡령·매입) 등으로 기소된 김승연(60) 한화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했다.

또 한화그룹 경영지원실장으로서 김 회장의 지시를 이행한 혐의로 기소된 홍동우 여전NCC 대표이사에 대

해서는 징역4년과 벌금 10억원을, 한화국토개발 대표이사로 비자금 조성에 기dan한 김관수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을 포함해 실형이 선고된 이를 3명의 피고인을 모두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은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위장계열사 한유통·웰롭을 부당지원하고 계열사 보유주식을 누나 측에 저가로 양도해 각각 2833

억원, 141억원의 손해를 끼쳤으며 차명 주식거래로 15억원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며 김 회장의 유죄를 인정했다.

이어 "김 회장은 한화그룹의 지배주주로서 영향력과 가족의 지위를 이용해 차명 계열사를 부당지원하는 등 손해를 끼쳤다"며 "모든 범행의 최대 수혜자로서 반성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회장에 대해 징역 9년과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 영유아 두 자녀 가구에도 어린이집 입소 우선권

앞으로 세 자녀 가정뿐 아니라 두 명의 영유아(만0~5세)를 둔 가정에도 어린이집 입소에 대한 우선권이 주어진다.

또 합리적 이유없이 갑자기 어린이집 운영을 중단하는 원장은 자격정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인 '다자녀'의 범위가 기존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의 자녀'에서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로 확대됐다. 따라서 앞으로 세 자녀 가구와 영유아 두 자녀 가구는 똑같은 가산점을 받게 된다.

정당한 사유없이 어린이집 문을 닫는 일도 법으로 금지된다.

맞벌이·저소득 가정 자녀 등 어린이집을 꼭 이용해야 하는 아이들에게 안정적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어기면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자격정지 1년과 시정명령 후 운영정지 1년 등의 제재를 받는다.

/연합뉴스

## 남구청사 부지 활용 방안

### 주민 공청회 참가자 모집

광주시 남구는 남구종합청사 이전을 앞두고 다음달 20일 오후 남구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현 청사 부지 활용 주민 공청회' 참가자를 모집한다.

공청회에서는 현 청사부지의 ▲전체 매각 ▲부분 매각 ▲용도 전환 등

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또 토론 후에는 공청회 참가자 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현장에서 주민들에게 공표하고, 결과를 추후에 활용할 계획이다.

모두 300명을 모집하는 이번 공청회 참가신청은 각 동사무소를 통해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전화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문의 남구청 회계과 062-650-7476.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www.hpdynastycc.co.kr

## 함평다이너스티CC에서 홀인원 대박을!!



### 로또 누적방식 홀인원 상금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1. 함평다이너스티CC에서 최초 시드머니 100만원을 2개의 Par3홀에 겁니다.
2. 도전을 희망하시는 팀은 Tee off 전에 1만원을 배팅합니다.
3. 홀인원에 성공하시면 그때까지 누적된 상금의 90%를 수상하게 됩니다.  
→ 10%는 차기 홀인원 시드머니로 적립됩니다.  
→ 소득세는 수상자 부담입니다.
4. 누적된 상금액은 매일 실시간으로 프로트에 게시됩니다.
5. 이벤트 홀은 임페리얼코스 7번, 펠리스코스 20번홀입니다.

진초록 양잔디 카펫을 밟으며 평생 잊지 못할 짜릿한 추억을!!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전화: 061-7700-7777